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애비디오

이야기의 재건 5 : 폴리포니, 가상의 나
Reconstruction of Story 5 : Polyphony, the Imaginary of '1'
2017. 6. 14. - 7. 16.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2016. 6. 8. - 7. 23.

이야기의 재건 2 : 던컨 캠벨, 오톨리스 그룹,
그리고 와엘 샤키
2016. 8. 10. - 9. 11.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2016. 11. 30. - 2017. 2. 26.

이야기의 재건 4 : 다중구조, 이것 또는 저것
2017. 4. 12. - 5. 20.

이야기의 재건 5 : 폴리포니, 가상의 나
2017. 6. 14. - 7. 16.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8 June 2016 - 23 July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2 :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
10 August 2016 - 11 September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30 November 2016 - 26 February 2017

Reconstruction of Story 4 :
Multi-Structure, Ici et Ailleurs
12 April 2017 - 20 May 2017

Reconstruction of Story 5 :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14 June 2017 - 16 July 2017

목차

서문	4
상영시간표	6
마르그리트 뒤라스	8
세자레	10
바위에 새겨진 손	11
오렐리아 스타이너(멜버른)	12
오렐리아 스타이너(밴쿠버)	13
패트릭 킬러	14
스톤브리지 파크	16
노우드	17
디 엔드	18
발토스 혹은 베일	19
더 클라우드	20
런던	21
로빈슨 인 스페이스	22
노후 주택	23
로빈슨 인 루인스	24
양혜규	25
펼쳐지는 장소 (비디오 삼부작 I)	27
주저하는 용기 (비디오 삼부작 II)	28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비디오 삼부작 III)	29
휴일 이야기	30
에릭 보들레르	31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33
어글리 원	34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35

Contents

Introduction	5
Screening Schedule	7
Marguerite Duras	8
Césaire	10
Les Mains Négatives	11
Aurélia Steiner (Melbourne)	12
Aurélia Steiner (Vancouver)	13
Patrick Keiller	14
Stonebridge Park	16
Norwood	17
The End	18
Valtos or the Veil	19
The Clouds	20
London	21
Robinson in Space	22
The Dilapidated Dwelling	23
Robinson in Ruins	24
Haegue Yang	25
Unfolding Places (Video Trilogy I)	27
Restrained Courage (Video Trilogy II)	28
Squandering Negative Spaces (Video Trilogy III)	29
Holiday Story	30
Eric Baudelaire	31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33
The Ugly One	34
Letters to Max	35

2016년 6월부터 시작한 장기 기획상영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시리즈는 <이야기의 재건 5: 폴리포니, 가상의 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시리즈는 이미지와 텍스트, 목소리(사운드)가 가상의 나를 매개로 결합되면서 에세이영화 서사의 아름다운 예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여러 개의 선율을 독립적으로 유지 하면서 동시에 전체로 결합되는 폴리포니 음악의 선율 처럼, 목소리로 전달되는 텍스트의 운율과 이미지의 대위법적 관계는 자유로운 시적 영화의 완성을 이끌어 낸다. 가상의 인물을 통해 현재의 풍경이 다층적인 시간의 이야기를 내포하는 영화를 만들어온 작가들 중에서도 <이야기의 재건 5>는 마르그리트 뒤라스, 패트릭 킬러, 양혜규, 에릭 보틀레르의 작품을 소개한다.

문학과 영화를 포함한 여러 예술 장르에 걸쳐 새로운 미학의 흐름을 선도한 작가였으며 현대 영화미학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작가로 기억될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작품 중에서 <이야기의 재건 5>는 뒤라스가 1979년에 만든 네 편의 단편을 소개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풍경 이미지가 선사시대 동굴벽화에 그려진 손 이미지로 중첩되는 식으로 텍스트의 열린 시적 가능성을 탐구한 뒤라스의 이 단편들은 현대 에세이 영화의 가장 담백한 유형을 보여준다. 또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 『죽음에 이르는 병』(1982)을 모노드라마로 연출하기도 했던 양혜규의 ‘비디오 3부작’(2004-2006)은 일종의 여행 서사시 형식 안에서 목소리와 이미지의 관계를 실험한다. 부유하는 여행자의 단상이 보이스오버로 전해지는 가운데 모호한 풍경 이미지들은 자아와 도시공간 사이의 간극을 담아낸다. 에릭 보틀레르의 영화는 통용되는 역사와 지역의 구조 속에서 단절되거나 사라진 존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재구성해낸다.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2014)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 압하지야의 전직 외교부 장관 막심 그빈지야를 화자로 삼아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급진 좌파 시나리오 작가였던 아다치 마사오가 1970년대 레바논에서 일본 연합적군 부대에 합류해 활동했던 27년 간의 이야기를 다룬 두 편의 장편영화는 풍경 이미지와 자료 화면을 활용해 주인공의 여정을 재구성한다.

주관적 카메라 시점과 보이스오버를 사용해 사색적인 풍경 이미지로 구성된 영화를 만들어온 현대 에세이영화의 거장 패트릭 킬러의 전작(全作)이 또한 상영된다. 그의 걸작 ‘로빈슨 3부작’(1994-2010)은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익명의 화자가 그의 친구였던 로빈슨과 동행한 일련의 런던 여행을 회고하는 보이스오버를 통해 자본주의와 현대 영국의 정치, 경제, 역사의 풍경을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재건 5: 폴리포니, 가상의 나>에서 소개되는 에세이영화의 걸작들은 작가의 주관적 시점 자체를 메타포로 변형하면서 생각하는 영화의 내적 운율을 전달하고, 잊혀지거나 숨겨지고 또는 사라진 이야기들을 재건한다.

A long-term film and video screening program begun in June 2016, the Reconstruction of Story series ends with *Reconstruction of Story 5: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This final program presents beautiful examples of essay film narratives that integrate images, texts, and voices (sounds) through a fictional “I.” Like the melodies of polyphonic music, where diverse melodies are independently maintained yet at the same time are combined in a whole, the contrapuntal relationship between images and the rhythms of texts conveyed through voices leads to the perfection of a poetics of free indirect discourse in narrative film. From among films where, through fictive characters, present landscapes come to contain tales of multilayered time, *Reconstruction of Story 5* presents works by Marguerite Duras, Patrick Keiller, Haegue Yang, and Eric Baudelaire.

Marguerite Duras is remembered as an artist who led new aesthetic trends in various art genres including literature and cinema and raised important issues in contemporary film aesthetics. Out of her works, *Reconstruction of Story 5* presents her four short films created in 1979. Exploring the open, poetic possibilities of texts by overlapping images of the Avenue des Champs-Élysées in Paris visible through the window with images of hands from prehistoric cave murals, for example, these shorts are of the plainest types in the contemporary essay film.

In addition, the video trilogy by Haegue Yang, who has staged a monodrama adapted from Duras’s novella *The Malady of Death*(*La maladie de la mort*; 1982), experiment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voices and images in a kind of a travel epic form. Ambiguous landscape images where the idle thoughts of a drifting traveler are transmitted through voice-overs reflect the gap between the self and urban spaces.

Eric Baudelaire’s works reconstruct in an essay format the hidden stories of beings who have been severed or have vanished in structures of conventional history and regions. *Letters to Max* adopts a form where letters are sent to Maxim

Gvinjia, the narrator and the former Foreign Minister of the legally nonexistent state of Abkhazia. Recounting the 27 years that Masao Adachi, a radical leftist screenwriter, spent in Lebanon in the 1970s as a member of the Japanese Red Army, two feature films reconstruct the protagonist’s journey by using landscape images and archival footages.

Also screened is the entire oeuvre of Patrick Keiller, a master of the contemporary essay film who has created works consisting of contemplative landscape images with the use of subjective camera perspectives and voice-overs. His magnum opus, the Robinson trilogy speaks of capitalism and the landscapes of contemporary British politics, economy, and history through voice-overs in which the unseen, anonymous narrator reminisces about a series of excursions around London accompanied by his friend Robinson.

The masterpieces of the essay film presented in *Reconstruction of Story 5: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convey the internal rhythms of films that ar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turning the artists’ subjective perspectives themselves into metaphors and reconstruct forgotten, hidden, or lost tales.

상영 시간표
2017. 6. 14. – 7. 16.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p>6. 14</p> <p>19:00 ¹⁵ ^K ^E 마르그리트 뒤라스 단편프로그램 (10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자레 · 바위에 새겨진 손 · 오렐리아 스타이너(멜버른) · 오렐리아 스타이너(밴쿠버) 	<p>15</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노후 주택 (78min)</p>	<p>16</p> <p>15:00 ¹⁵ ^K 양혜규 단편프로그램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펼쳐지는 장소 · 주저하는 용기 ·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 휴일 이야기 	<p>17</p> <p>14:00 ¹⁵ ^K ^E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66min)</p> <p>19:00 ¹⁵ ^K 패트릭 킬러 단편프로그램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톤브리지 파크 · 노우드 · 디 엔드 · 발토스 혹은 베일 · 더 클라우드 	<p>18</p> <p>14:00 ¹⁵ ^K ^E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66min)</p> <p>16: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103min)</p>
<p>21</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스페이스 (82min)</p> <p>19: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루인스 (101min)</p>	<p>22</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단편프로그램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톤브리지 파크 · 노우드 · 디 엔드 · 발토스 혹은 베일 · 더 클라우드 	<p>23</p> <p>15: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103min)</p>	<p>24</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노후 주택 (78min)</p> <p>19:00 ¹⁵ ^K ^E 마르그리트 뒤라스 단편프로그램 (10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자레 · 바위에 새겨진 손 · 오렐리아 스타이너(멜버른) · 오렐리아 스타이너(밴쿠버) 	<p>25</p> <p>15: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어글리 원 (101min)</p>
<p>28</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런던 (85min)</p> <p>19:00 ¹⁵ ^K 양혜규 단편프로그램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펼쳐지는 장소 · 주저하는 용기 ·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 휴일 이야기 	<p>29</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스페이스 (82min)</p>	<p>30</p> <p>15: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어글리 원 (101min)</p>	<p>7. 1</p> <p>15:00 ¹⁵ ^K ^E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66min)</p> <p>19: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루인스 (101min)</p>	<p>2</p> <p>15:00 ¹⁵ ^K ^E 마르그리트 뒤라스 단편프로그램 (10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자레 · 바위에 새겨진 손 · 오렐리아 스타이너(멜버른) · 오렐리아 스타이너(밴쿠버)
<p>5</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노후 주택 (78min)</p> <p>19: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어글리 원 (101min)</p>	<p>6</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런던 (85min)</p>	<p>7</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단편프로그램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톤브리지 파크 · 노우드 · 디 엔드 · 발토스 혹은 베일 · 더 클라우드 	<p>8</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스페이스 (82min)</p> <p>19:00 ¹⁵ ^K 에릭 보들레르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103min)</p>	<p>9</p>
<p>12</p>	<p>13</p>	<p>14</p> <p>15:00 ¹⁵ ^K ^E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66min)</p>	<p>15</p> <p>14:30 ¹⁵ ^K 양혜규 단편프로그램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펼쳐지는 장소 · 주저하는 용기 ·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 휴일 이야기 	<p>16</p> <p>15:00 ¹⁵ ^K 패트릭 킬러 로빈슨 인 루인스 (101min)</p>

Screening Schedule
14 June – 16 July 2017

Wed.	Thu.	Fri.	Sat.	Sun.
<p>6. 14</p> <p>19:00 ¹⁵ ^K ^E Marguerite Duras Short Program (10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ésarée · Les Mains Négatives · Aurélia Steiner(Melbourne) · Aurélia Steiner(Vancouver) 	<p>15</p> <p>15:00 ¹⁵ ^K ^E Patrick Keiller The Dilapidated Dwelling (78min)</p>	<p>16</p> <p>15:00 ¹⁵ ^K Haegue Yang Short Program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olding Places · Restrained Courage · Squandering Negative Spaces · Holiday Story 	<p>17</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London (85min)</p> <p>19:00 ¹⁵ ^K Patrick Keiller Short Program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bridge Park · Norwood · The End · Valtos or the Veil · The Clouds 	<p>18</p> <p>14:00 ¹⁵ ^K ^E Eric Baudelaire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66min)</p> <p>16:00 ¹⁵ ^K Eric Baudelaire Letters to Max (103min)</p>
<p>21</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Robinson in Space (82min)</p> <p>19:00 ¹⁵ ^K Patrick Keiller Robinson in Ruins (101min)</p>	<p>22</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Short Program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bridge Park · Norwood · The End · Valtos or the Veil · The Clouds 	<p>23</p> <p>15:00 ¹⁵ ^K Eric Baudelaire Letters to Max (103min)</p>	<p>24</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The Dilapidated Dwelling (78min)</p> <p>19:00 ¹⁵ ^K ^E Marguerite Duras Short Program (10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ésarée · Les Mains Négatives · Aurélia Steiner(Melbourne) · Aurélia Steiner(Vancouver) 	<p>25</p> <p>15:00 ¹⁵ ^K Eric Baudelaire The Ugly One (101min)</p>
<p>5</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The Dilapidated Dwelling (78min)</p> <p>19:00 ¹⁵ ^K Eric Baudelaire The Ugly One (101min)</p>	<p>6</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London (85min)</p>	<p>7</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Short Program (95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bridge Park · Norwood · The End · Valtos or the Veil · The Clouds 	<p>8</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Robinson in Space (82min)</p> <p>19:00 ¹⁵ ^K Eric Baudelaire Letters to Max (103min)</p>	<p>9</p>
<p>12</p>	<p>13</p>	<p>14</p> <p>15:00 ¹⁵ ^K ^E Eric Baudelaire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66min)</p>	<p>15</p> <p>14:30 ¹⁵ ^K Haegue Yang Short Program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olding Places · Restrained Courage · Squandering Negative Spaces · Holiday Story 	<p>16</p> <p>15:00 ¹⁵ ^K Patrick Keiller Robinson in Ruins (101min)</p>

등급
¹⁵ 15세 이상 관람가

자막
^K 한국어 자막
^E 영어 자막

Ratings
¹⁵ Under 15 not admitted

Subtitles
^K Korean
^E English

마르그리트 뒤라스

프랑스 누보로망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마르그리트 뒤라스(1914-1996)는 47권의 책을 출간하고, 19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1958년 르네 클레망 감독이 소설 『태평양의 방파제』(1950)를 영화화한 뒤, 뒤라스는 서사형식 실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1959)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라 무지카〉(1966)를 폴 세방과 공동 연출한 이후 뒤라스는 본격적으로 영화 작업을 시작해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1969), 〈나탈리 그랑제〉(1972), 〈인디아 송〉(1975), 〈트럭〉(1977) 등을 연출한다. 뒤라스의 영화는 누보로망의 또 다른 작가 알랭 로브그리에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습적인 인물의 심리학과 재현 방식을 파괴하면서, 극적 서사가 아닌 존재론적 현실을 구현하는 영화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뒤라스는 장 콥토와 더불어 문학과 영화를 포함한 여러 예술 장르에 걸쳐 새로운 미학적 흐름을 선도했으며, 장뤽 고다르, 장 마리 스트라우브와 함께 현대 영화미학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Marguerite Duras

A representative author of the French *Nouveau Roman*, Marguerite Duras(1914-1996) published 47 books and directed 19 films. Following director René Clément's film adaptation of her novel *The Sea Wall*(*Un barrage contre le Pacifique*; 1950) in 1958, she came to pen the script for director Alain Resnais' *Hiroshima My Love*(*Hiroshima mon amour*; 1959), which presented new possibilities for experiments with narrative forms. After co-directing *La Musica*(1966) with Paul Séban, Duras began her cinematic work in earnest and went on to direct films including *Destroy, She Said*(*Détruire, dit-elle*; 1969), *Nathalie Granger*(1972), *India Song*(1975), *The Lorry*(*Le camion*; 1977). The films of Duras present cinematic methodologies that realize existential reality instead of dramatic narratives by destroying conventional character psychology and representation methods in a different way of Alain Robbe-Grillet's, another writer of the *Nouveau Roman*. Duras is an artist who led new aesthetic trends in diverse art genres including literature and cinema together with Jean Cocteau and raised important issues in contemporary film aesthetics along with Jean-Luc Godard and Jean-Marie Straub as well.

세자레

마르그리트 뒤라스 | 프랑스 | 1979 | 11min | 35mm | Color

영화는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동상, 퐁르리 공원에 놓인 아리스티드 마욘의 조각상들, 오벨리스크의 상형문자 등을 천천히 비춘다. 파괴된 팔레스타인의 고대도시 세자레와 유대의 여왕 베레니케의 이름을 부르는 뒤라스의 목소리는 라신느의 비극에 등장하는 베레니스를 연상하게 하는 중의적 메타포를 매개한다. 이미지와 텍스트, 목소리가 어우러져 시적 운율을 구성하는 에세이영화의 걸작이다.

*〈세자레〉와 〈바위에 새겨진 손〉은 뒤라스의 또 다른 장편 〈르 나비르 나이트〉(1979)에 사용되지 않은 장면들로 만들어졌다.

Césarée

Marguerite Duras | France | 1979 | 11min | 35mm | Color

The film slowly shows objects including the statues on the Place de la Concorde in Paris, Aristide Maillol's sculptures placed in the Tuileries Garden, and hieroglyphs on the Luxor Obelisk. Calling out the names of the destroyed ancient Palestinian city of Césarée (Caesarea) and Berenice, Queen of the Jews, Duras's voice mediates ambiguous metaphors that are reminiscent of Bérénice from Racine's tragedy. As such, this work is a *tour de force* in the essay film where images, texts, and voices combine to forge poetic rhythms.

* *Les Mains Négatives* and *Césarée* are made from unused shots of *Le Navire Night*.

바위에 새겨진 손

마르그리트 뒤라스 | 프랑스 | 1979 | 13min 45sec | SD | Color

우리는 1년 중 파리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8월 중순 한 주 동안 촬영했다. 이른 아침 6시 15분에서 7시 45분 사이, 자동차에 설치한 카메라로 거리를 비추는 동안 마젠타 거리의 한 매춘부를 제외하고 우리가 본 것은 흑인들, 파리 국립오페라극장 부근 강도를 청소하는 포르투갈 여성 청소부 한두 명, 불량배 한두 명, 그리고 노숙자 몇몇이었다. 인도차이나에서 보낸 청소년기 이래 나는 피식민지인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애정을 그들에게 보낸다.
—마르그리트 뒤라스

Les Mains Négatives

Marguerite Duras | France | 1979 | 13min 45sec | SD | Color

We filmed in the middle of august, Paris being relatively empty only one week a year. During the 45 minutes of traveling between 6:15 and 7:45 in the morning, apart from a prostitute on boulevard Magenta, the only people we saw were blacks, a couple Portuguese cleaning ladies near Opera, the ones that clean banks, a few loubards, and some homeless people. Since my youth in Indochina, I have never seen such a population of colonized people together in one place. The love, it's addressed to them.
—Marguerite Duras



오렐리아 스타이너 (멜버른)

마르그리트 뒤라스 | 프랑스 | 1979 | 27min 20sec | SD | Color

이 영화는 수신자 불명의 긴 편지이다. 카메라와 텍스트는 파리의 센 강과 다리를 따라가며 역광 속 어두운 윤곽으로 드러나는 행인들을 비춘다. 텍스트와 영화는 이 강처럼 절벽과 대지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를 뚫고 나아간다. 물과 바위 뒤에는 사랑, 죽음, 그리고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가 묻혀 있다. 영화 속 목소리는 정원에 있는 굶주린 고양이, 독일 치하 폴란드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영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폴란드의 공동묘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머나먼 멜버른에서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에 등장하는 스타인처럼) 말하고 쓰는 낭만적이고 의지 강한 유대인 소녀가 보내는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연애편지이다.

Aurélia Steiner (Melbourne)

Marguerite Duras | France | 1979 | 27min 20sec | SD | Color

The film is a long letter whose recipient is unknown. The camera and the text of the letter follow the river, the Seine and the bridges of Paris shot against the light, upside down with the dark silhouettes of obscure people, passers-by, anonymous. The text, the film, like this river, advance (as the road in *Le Camion* was the film itself) through the ancient city, surrounded by cliffs and platforms. Behind the water and the stones are buried the small and the great story, love, death. The voice tells of a starving cat in a garden, of the death camps in the German Poland. The film, the text is for all of us. It is a total and universal love letter from a Jewish girl, romantic and determined (such as Stein in *Détruire dit-elle*), who speaks, writes, far far away, from Melbourne, so far away from the mass graves of Poland.



오렐리아 스타이너 (밴쿠버)

마르그리트 뒤라스 | 프랑스 | 1979 | 48min | SD | B&W

오렐리아 스타이너는 집단수용소에 있었다. 나치 정부가 세운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바다는 물론 유럽 내륙과도 멀리 떨어진, 겨울에는 혹독하게 춥고 여름에는 숨 막히게 더운 장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다시 말해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했다. <오렐리아 스타이너 (밴쿠버)>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였지만 기어코 만들어졌다. 영화는 이 불가능성을 동반한 채 움직인다.

“외부가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라. 예를 들면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교수형을 당한 젊은이를 보여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 오른쪽에 몰드르 강변을 따라 늘어선 포플러 나무 길을 지나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속으로 되뇌 때 그 일은 일어난다.”
—마르그리트 뒤라스

Aurélia Steiner (Vancouver)

Marguerite Duras | France | 1979 | 48min | SD | B&W

Aurélia Steiner was in a concentration camp. She lived right there. A German concentration camp, Auschwitz II-Birkenau was a continental location bitterly cold in winter and intensely hot as to be stifling in summer, very distant from the sea and very distant from inland Europe as well. She moved right there in order to write her story, or the story of the Jews in all eras. *Aurélia Steiner (Vancouver)* was a film that could not be made. But it was made. The movie became extraordinary because efforts were not made to change this impossibility. The film moves accompanied by such an impossibility.

“Let the outside enter your mind. For example, I do not think of things like showing a youth hanged at Auschwitz. When I say in my mind, ‘It will happen’ while passing by the poplars lined up along the Mauldre River to my right, it does happen.”
—Marguerite Duras



패트릭 킬러(1950-)는 영국의 영화감독, 작가이자 풍경과 환경에 관한 연구자이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아방가르드 영화학자인 데이비드 커티스와 교류하며 영화를 공부했다. 그의 작품은 주관적인 카메라 시점과 보이스오버 사용이 특징이다.

1979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보수당 정권 치하 영국의 경제적 풍경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두 영화 <런던>(1994)과 <로빈슨 인 스페이스>(1997)는 내레이션을 통한 서사적 구조와 풍경의 시적 이미지를 잘 드러낸다. <로빈슨 인 스페이스>는 익명의 화자(배우 폴 스코필드의 목소리로 녹음된)가 친구이자 오랜 연인,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로빈슨과 동행한 런던 여행을 회고한다. 로빈슨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로빈슨 인 루인스>(2010)에는 영국 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익명의 화자로 등장한다. 2012년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최근 경제 위기의 기원을 설명하는 영국의 풍경 및 정치·경제적 역사에 대한 전시 《로빈슨 연구소》를 선보였다.

Patrick Keiller(1950-) is a British filmmaker, writer and lecturer. After majoring architecture, he studied cinema interacting with Davis Curtis, a British film theorist specialized in avant-garde cinema. Most of his works are typified by their use of subjective camera and voice-over, a technique that was brought to its height in the highly-celebrated *London*(1994) and *Robinson in Space*(1997)—two films that have been seen as a critique of the UK's economic landscape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of 1979-97. *Robinson in Space* is narrated by an unnamed character(voiced by Paul Scofield) who accompanies his friend and onetime lover, the unseen Robinson, in a series of excursions around London. In *Robinson in Ruins*(2010), the final film of the Robinson trilogy, British actress Vanessa Redgrave provides a narration. For his exhibition *The Robinson Institute*(Tate Britain, 2012), Patrick Keiller selected over 120 works to create a narration of the English landscape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illustrat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origin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스톤브리지 파크

패트릭 킬러 | 영국 | 1981 | 21min | HD | B&W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영화. 첫 번째 부분에서 내레이터는 충동적으로 전 고용주를 털게 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말한다. 한편, 카메라는 산만한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인근 교차로 위로 이동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카메라 워크가 그의 탈출 경로를 재구성하는 동안, 범 죄를 저지른 이후 그가 겪은 공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이 영화에는 자연과 도시 풍경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푸티지에 허구적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이 추가되었다. 서사는 영상이 촬영되고 편집된 뒤에 쓰여졌다.”
— 패트릭 킬러

Stonebridge Park

Patrick Keiller | UK | 1981 | 21min | HD | B&W

A film in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narrator describes the events that led to his impulsive decision to rob his former employer. The camera meanwhile walks about above the nearby road junction, surveying the distracted environment. In the second part, he recounts the anatomy of his panic following the crime, while the walking camera reconstructs his escape route.

“In these films, fictional voice-over narration is added to documentary footage of landscape and townscape. The narratives were written after the pictures were shot and edited.”
— Patrick Keiller



Courtesy of Patrick Keiller and LUX, London

노우드

패트릭 킬러 | 영국 | 1983 | 26min | HD | B&W

노우드의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영화 <노우드>에는 <스톤브리지 파크>에 처음 나왔던,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남자가 등장한다. 이전 영화에서 그는 전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던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신중한 망명자 신분에서 벗어난 남자는 일련의 부동산 투기에 착수하는데, 사업 동료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은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불법 행위의 희생양이 되게 할 뿐이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카메라는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한다. 화자는 영화의 3분의 2 가량을 자신의 살인과 그에 따른 천국으로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은 노우드에서도 역시 벌어지는 일인 듯 보인다.
— 패트릭 킬러

Norwood

Patrick Keiller | UK | 1983 | 26min | HD | B&W

Filmed entirely on location in *Norwood*, relives the undoing and subsequent redemption of its narrator, a man of unreliable morality first featured in *Stonebridge Park*, in which film it was told how he came to run off with a large sum of money previously in the possession of his ex-employer. Returning from a prudent exile, he embarks on a series of property speculations only to fall victim to a more efficient manner of wrongdoing practiced by his business associates. While the story is recounted, the camera visits locations, at which the events described are presumed to have taken place. Two thirds of the way through the film the narrator describes his own murder and subsequent ascension to heaven, but as this also seems to be in *Norwood* maybe we have our doubts.
— Patrick Keiller



Courtesy of Patrick Keiller and LUX, London

디 엔드

패트릭 킬러 | 영국 | 1986 | 18min | HD | B&W

‘어떤 생각의 흐름에서든 한 가지 생각의 끝은 다음 생각의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편리하지만 터무니없는 가설을 상세하게 풀어놓는 어느 보행자의 여행기.

—패트릭 킬러

The End

Patrick Keiller | UK | 1986 | 18min | HD | B&W

The travelogue of a pedestrian, which expounds (amongst other things) the convenient but inept supposition that ‘in any train of thought, the END of one is followed by the beginning of the next.’

—Patrick Keiller

발토스 혹은 베일

패트릭 킬러 | 영국 | 1987 | 11min | HD | B&W

〈발토스 혹은 베일〉은 1987년 어느날 자신이 “지난밤 사이에 복제되었고,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의 열등한 복제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채 깨어난 화자가 그로부터 30년 뒤, 마지막 순간에 펼쳐놓는 이야기이다. 그리고는 도주하는 유령, 즉 자신의 ‘원본’을 잡기 위한 집요하고 장대한 추적이 이어지는데, 이 추적은 영묘하면서도 섬뜩한 장소인 발토스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Valtos or the Veil

Patrick Keiller | UK | 1987 | 11min | HD | B&W

Valtos or the Veil is a story told from thirty years hence, in the last moments of its narrator, who awoke one day in 1987 ‘with the knowledge that I had been duplicated during the night, and that I was an inferior replica of myself’. There follows a relentless, epic, pursuit of an absconding phantom which ends in catastrophe at Valtos, a place at once ethereal and terrifying.



Courtesy of Patrick Keiller and LUX, London



Courtesy of Patrick Keiller and LUX, London

더 클라우드

패트릭 킬러 | 영국 | 1989 | 19min | 16mm | B&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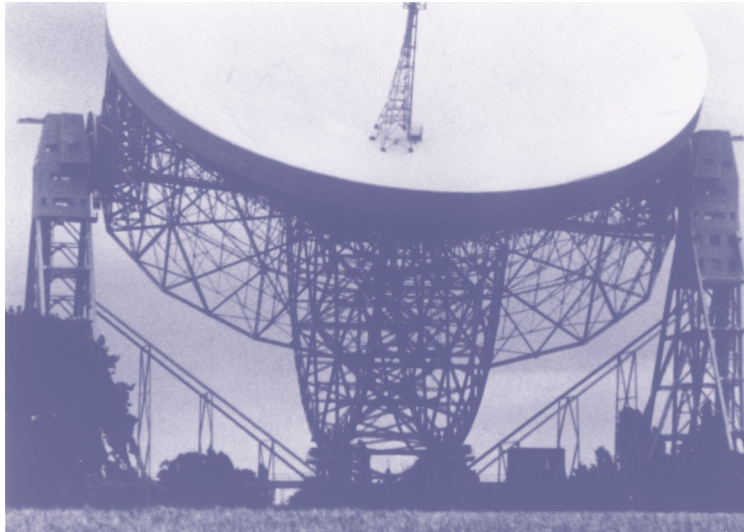
영국의 산업적 풍경과 전원 풍경을 배경으로, 화자는 세계의 형성과 초기 거주자에 대한 신화적 역사를 교차시키며 자신의 잉태와 출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를 잉태한 부모는 새 도시로 이사한다. 못 미더운 남편 때문에 어머니는 낙태를 고려하지만 사촌과 논의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

지구가 형성되고 거인들은 그 위에 산다. 오늘날의 산업적 풍경 속에서 아직 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질학적 기반 위에 형성되었지만 다문화적이고 공업적인 자기 시대의 도시에서 화자는 태어났다. 자신을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해 인식하기 전부터 그는 이미 거인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자유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가시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숨은 세계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된다.

The Clouds

Patrick Keiller | UK | 1989 | 19min | 16mm | B&W

Over a series of industrial and rural images of Britain, a narrator tells the story of his conception and birth, weaving in a mythic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world and its early inhabitants. He is conceived, and his parents move to a new town. During his mother's pregnancy, his father's decline and unreliability lead her to contemplate abortion, but discussing it with a cousin, she decides against it and his future is assured. The earth forms and giants live upon it: traces of them are still visible in the industrial landscape and processes of today. The narrator is born in a city of his time, built upon geological formations but multicultural and industrial. Before he can separate himself from the world around him, he too is a giant, but grows to ponder where free will can come from, and the hidden world that lies within the visible world.



런던

패트릭 킬러 | 영국 | 1994 | 85min | DCP | Color

이 영화는 두 가지 비판적 사유를 통합하고자 했다. 한편에는 에드거 앨런 포, 샤를 보들레르, 루이 아라공, 발터 벤야민 등의 '도시' 문학이 있는데, 이 맥락에서 런던은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특정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쇠퇴론자들의' 시나리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혁명은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런던은 살기 불편한 도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덜 낙후된 공간, 건축적으로 더 잘 세워진 도시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주거환경만은 피했다. [...] 어쩌면 런던은 심지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현대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로빈슨처럼 편협한 사람조차도 갈수록 런던의 인구가 전 세계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정도이니 말이다. —패트릭 킬러

London

Patrick Keiller | UK | 1994 | 85min | DCP | Color

The film attempted to combine two strands of critical thinking. On one hand, there was the 'urban' literature of Edgar Allan Poe, Charles Baudelaire, Louis Aragon, Walter Benjamin and so on, in the context of which London appeared to be a city where certain kinds of urban experience characteristic of European cities were difficult to find. On the other were the various 'declinist' scenarios of English capitalism, in particular the idea that England was a backward, failing economy because it had never had a successful bourgeois revolution. [...] London might be uncomfortable to live in, but it avoided the more stupefying aspects of dwelling that a less spatially impoverished, more 'architectural' city might encourage. Perhaps London was even, despite its obvious anachronisms, rather modern. Even someone as narrow-minded as Robinson could hardly fail to notice the increasingly cosmopolitan make-up of its population. —Patrick Keiller



로빈슨 인 스페이스

패트릭 킬러 | 영국 | 1997 | 82min | 35mm | Color

이전 작품 <런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화자(배우 폴 스코필드의 목소리로 녹음된)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영국인의 시대 착오, 영국 문화와 내부의 결핍, 영국의 노후화, 그리고 산업 경제를 살펴본다. 로빈슨은 경제 파탄, 특히 제조업의 실패에 대해 추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대부분의 부를 창출해 내는 산업 경제 구조로 인해 영국 경제가 점차 위협받게 되었다고 짐작한다. 영국이 빈곤하고, 노후하게 된 까닭은 경제 쇠락이 아니라 정치 권력 행사 때문이다. 영국의 '촌스러운' 느낌은 선진국들 중에서 경제 국제화 및 탈규제를 이룩해 낸 영국의 지위가 허위임을 드러낸다.

—패트릭 킬러

Robinson in Space

Patrick Keiller | UK | 1997 | 82min | 35mm | Color

Accompanied (as in the earlier *London*) by the film's similarly unseen narrator, he embarks on a series of journeys. They look at English anachronism, at English culture and its absences, at English dilapidation, and at the industrial economy. Robinson sets out with assumptions about economic failure, especially in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are gradually challenged by the discovery of an industrial economy that employs few people but still generates most of the wealth of the fif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UK's impoverished, dilapidated appearance is not the result of economic decline, but of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the 'provincial' feel of England belies the UK's status as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ised and deregulated economies in the developed world.

—Patrick Keiller

노후 주택

패트릭 킬러 | 영국 | 2000 | 78min | HD | Color

<노후 주택>은 선진국의 경제, 특히 영국에서 주거공간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찰이다. 화자인 가상의 연구자(틸다 스윈튼)는 20년 만에 북극에서 돌아온다. 그는 영국이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로 여겨지는데 비해 주택은 너무 좁고 낡았으며, 건축적으로도 황폐해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놀라워한다. 이 영화는 주택 건설을 현대화하려는 반복적인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질문하며, 영국의 주택 경제가 어떤 이유로 완전히 디스토피아화 됐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버크민스터 풀러(건축가), 콘스탄트(예술가), 아키그램(건축가 그룹), 윌터 시걸(건축가)의 아카이브 영상과 마틴 폴리(건축평론가), 사스키아 사센(사회학자), 도린 매시(지리학자), 세드릭 프라이스(건축가) 등과의 인터뷰가 포함된다.

—패트릭 킬러

The Dilapidated Dwelling

Patrick Keiller | UK | 2000 | 78min | HD | Color

The Dilapidated Dwelling is an examination of the predicament of domestic space in advanced economies, the UK in particular. A fictional researcher(voiced by Tilda Swinton) returns from a 20-year absence in the Arctic to find that while the UK is still one of the world's wealthiest economies, its houses, flats etc. are typically old, small, dilapidated, architecturally impoverished, energy-inefficient and, especially, extraordinarily expensive. The film asks why repeated attempts to modernize house production have not been moresuccessful, and attempts to discover why the UK's housing economy has become so thoroughly dystopian. It includes archive footage of Buckminster Fuller, Constant, Archigram and Walter Segal, and interviews with Martin Pawley, Saskia Sassen, Doreen Massey, Cedric Price and others.”

—Patrick Keiller



이야기의 재건 5: 폴리포니, 가상의 나

Reconstruction of Story 5: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패트릭 킬러



Patrick Keiller

Courtesy of Patrick Keiller and LUX, London

로빈슨 인 루인스

패트릭 킬러 | 영국 | 2010 | 101min | DCP | Color

패트릭 킬러의 최근작인 <로빈슨 인 루인스>에는 괴짜 연구자가 또 다시 등장해 옥스퍼드와 주변의 과학적·역사적 명소 시찰에 나선다. <로빈슨 인 스페이스>에서 로빈슨이 런던 주변부와 영국을 여행한지 약 10여 년이 지난 후, 그가 출옥 후 조사를 재개했음을 암시하는 필름 캔과 몇 편의 글들이 발견된다. 로빈슨은 세계의 큰 병폐(금융 위기, 지구 온난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발발한 전쟁, 그리고 불분명한 소유주에게 이양된 영국 등의 증상들)를 치유하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있다. 그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비-인간 지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킬러는 재기 넘치는 각본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 과학, 농업, 건축,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함께 엮어낸다.

—제프 앤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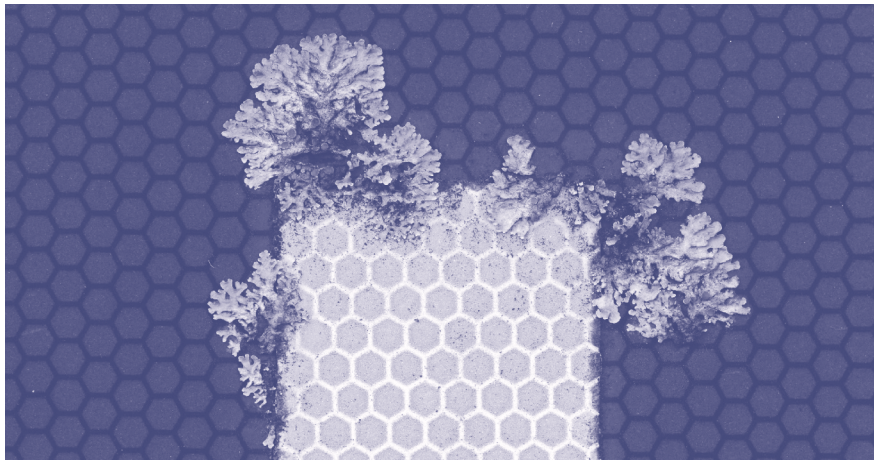
Robinson in Ruins

Patrick Keiller | UK | 2010 | 101min | DCP | Color

Patrick Keiller's latest sees his shadowy, somewhat eccentric titular researcher embark on another tour of 'sites of scientific and historical interest' in and around Oxford.

A decade after his earlier trips around London and England, film cans and writings are discovered suggesting that Robinson resumed his investigations upon release from prison. Keen to cure the world of 'a great malady' (symptoms include the banking crisis, global warming, war in Afghanistan and Iraq, and the transfer of British land to obscure owners), Robinson sought to communicate with 'non-human intelligences' determined to preserve life on Earth... Keiller's witty, revealing script weaves together philosophy, the arts, history, politics, economics, science, agriculture, architecture and much else, even as surreal, mysterious and beautiful images, imbued with a deep love of the natural world, remind us of what's at risk.

—Geoff Andrew



양혜규(1971-)는 근대와 전근대 간의 구별을 불안정하게 만들으로써 재료의 정서적 힘을 탐색한다. 감각적 경험을 통한 시각적 추상화라는 작가 특유의 어휘는 공업적 제조와 민속 공예 기술을 한데 결합한다. 양혜규는 사회의 은폐된 구조뿐만 아니라 미술사, 역사, 문학, 그리고 정치적 전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상상한다. 그의 작업 기저에는 이주, 탈식민적 디아스포라, 강제 유배,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등 자신의 작업에서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재해석이 깔려 있다.

Haegue Yang

Haegue Yang was born in 1971 in Seoul, South Korea. Her work explores the affective power of materials by destabiliz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odern and the pre-modern, while her vocabulary of visual abstraction through sensory experiences combines industrial fabrication and folk craftsmanship. Yang's language is empowered by her ongoing research on art history, history, literature, and political biographies, as well as her investigation into the concealed structures of society through which she reimagines new possibilities of community. It is through such underlying references that she re-interprets some of her recurrent themes: migration, postcolonial diasporas, enforced exile, and social mobility.

25p. 양혜규, <주저하는 용기(비디오 삼부작 II)> (2004)

25p. Haegue Yang, *Restrained Courage (Video Trilogy II)* (2004)

이야기의 재건 5: 폴리포니, 가상의 나

Reconstruction of Story 5: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26

펼쳐지는 장소 (비디오 삼부작 I)

양혜규 | 한국 | 2004 | 18min 15sec | SD | Color

서울, 런던, 또는 여기저기, 은신처에 대한 갈망, 소음, 냄새, 축축한 공기, 버스 안에서 만난 만취한 남자의 반복되는 말, "Excuse me". 장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응시하는 작가의 사유와 감정이 부분적으로 지나가는 공간들 속에서 교차해간다.

“공항에 가는 일과 공항에 도착해서 기차나, 버스에 몸을 싣고 시내로 가는 여정은 고유한 ‘혼자만의 몫’으로 특별히 남겨졌다. 나는 이 몫에 대해 어떠한 가치 평가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혼자만의 몫’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혼자만의 경험, 시간, 인식 등. 그저 혼자 나만의. ‘도착하는 길’은 그리 짧지 않다.”
—〈펼쳐지는 장소〉보이스오버 중

Unfolding Places (Video Trilogy I)

Haegue Yang | Korea | 2004 | 18min 15sec | SD | Color

Seoul, London, or here and there, a yearning for a refuge, noises, smells, damp air, and "Excuse me," the repeated words of a completely drunk man encountered on a bus. The artist's thoughts and feelings as she gazes at changes in locations and the flow of time intersect in spaces that she partly passes by.

"Going to the airport, leaving there by train or bus heading to a city center is often left as something solely in my responsibility. I'm not trying to judge anything about it. My focus is on the aspect of "aloneness" in this act — my lone experience, time, perception, etc, all mine alone. "Arriving" is not a short process."
(voice-over in the film)



양혜규

Haegue Yang

27

주저하는 용기 (비디오 삼부작 II)

양혜규 | 한국 | 2004 | 19min 7sec | SD | Color

서울, 베를린의 거리, 달리는 기차, 떠나고 도착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로비 등 익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풍경들 위로 여기저기 편재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고독한 자아의 나른하고도 은밀한 독백이 지나간다.

Restrained Courage (Video Trilogy II)

Haegue Yang | Korea | 2004 | 19min 7sec | SD | Color

Above landscapes where anonymous people pass by such as the streets of Seoul and Berlin, a running train, and an airport lobby teeming with people leaving and arriving, the languid and secretive monologue of a solitary self who is omnipresent here and there yet does not seem to belong anywhere passes by.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비디오 삼부작 III)

양혜규 | 한국 | 2006 | 27min 57sec | SD | Color

“우리는 어떻게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인위적-의식적 구조와 자의적인 구조의 구별과 구분. 그 사이의 심연. 왜 많은 관계들이 비대칭적인 구조 안에서 자라나는가? 예를 들어 세계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보이소버 중

7장으로 구성된 일종의 여행 서사시. 조명등이 켜진 밤거리, 전신주의 그림자, 버려진 물건들이 쌓인 골목길, 비가 그친 후의 물웅덩이, 거기에 비친 집들의 풍경을 비추며 여러 장소를 오고 가는 자아와 도시 사이의 간극을 말한다.

Squandering Negative Spaces (Video Trilogy III)

Haegue Yang | Korea | 2006 | 27min 57sec | SD | Color

“How can we maintain a movement? The distinction and separation between artificial-conscious and arbitrary structures. The chasm in-between. Why do so many relationships grow in asymmetrical structure? For example, is the world losing me, or is it me who is losing the world?”
(voice-over in the film)

A kind of travel epic poem consisting of seven chapters. It speaks of night streets illuminated by lampposts, the shadows of utility poles, alleys piled with discarded objects, puddles that have formed after rain, the scenes of houses reflected in them, and the gap between the self who travels to and from diverse places and cities.



휴일 이야기

양혜규 | 한국 | 2007 | 13min 12sec | SD | Color

셔터가 내려지고 가게 앞 물건들이 비닐로 덮이는 휴일의 상가, 정적이 감도는 거리에 간간히 누군가가 놀이를 위해 던지는 공이 튕겨져 나가고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간다. 휴일 상가 골목길에 떠도는 노동과 휴식의 숨결이 무겁게 지나간다.

“시간 안에서 이 공간은 자라난다.”

—〈휴일 이야기〉 보이스오버 중

Holiday Story

Haegue Yang | Korea | 2007 | 13min 12sec | SD | Color

In commercial quarters on a holiday where roller shutters have been pulled down and goods in front of shops have been covered with plastic sheets, a ball thrown by someone for play bounces off a street shrouded in silence from time to time, and people pass by from time to time. Breaths of work and rest drifting in alleys around commercial quarters on a holiday pass by heavily.

“The space grows inside time.”
(voice-over in the film)



에릭 보들레르(1973-)는 현대미술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최근작인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2014), <어글리원>(2013), 그리고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2011)는 마르세이유, 로카르노, 톨론토, 뉴욕, 그리고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판화, 사진, 출판물 등을 아우르는 그의 리서치 기반의 작업들은 카셀 프리데리치 아눔 미술관, 파리 베통살롱 아트앤리서치센터, 베르겐 쿤스트할, 베이루트 미술관, 런던 개스웍스 갤러리, 프랑스 현대미술센터 시나고그 드 델므, 그리고 로스 앤젤레스 해머 미술관 등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영화와 함께 전시된 바 있다. 보들레르는 2014년 미디어시티 서울에 참가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한 SeMA -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Eric Baudelaire(1973-) is a contemporary visual artist and filmmaker. His recent feature films *Letters to Max* (2014), *The Ugly One* (2013) and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were selected at the FIDMarseille, Locarno, Toronto, New York and Rotterdam film festivals. His research-based practice also includes printmaking, photography and publications which have been shown in installations alongside his films in solo exhibitions at the Fridericianum in Kassel, Bétonsalon in Paris, the Bergen Kunsthall, the Beirut Art Center, Gasworks in London, La Synagogue de Delme in France and The Hammer Museum in Los Angeles. He participated in the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and won SeMA-HANA media art award.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에릭 보들레르 | 일본, 레바논 | 2011 | 66min | HD | Color

오시마 나가사, 와카마츠 코지와 같은 감독의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아다치 마사오는 당시 좌파 급진 정치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약명을 떨치던 일본 적군을 만난 이후 부대에 합류한다. 아다치 마사오는 2001년 체포되어, 일본으로 강제 소환되었다. 에릭 보들레르 감독은 이후 일본 사회에서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이 사건을 파고든다. 일본적군의 이야기는 핵심인물이었던 지도자 시게노부 후사코, 그녀의 딸 메이, 아다치 마사오 이 세 사람의 일생을 통해 펼쳐진다. 에릭 보들레르는 이 복잡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연출했다. 슈퍼 8mm 필름으로 촬영한 장면은 도쿄와 베이루트의 풍경이 아카이브 영상과 TV자료화면, 영화 푸티지 속에 뒤섞여 메이와 아다치의 목소리와 기억의 배경이 된다. 숨어 살아야 했던 어린 소녀의 일상과 망명, 정치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매혹적으로 중첩된다. 과거에 대한 재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의 조각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Eric Baudelaire | Japan, Lebanon | 2011 | 66min | HD | Color

As the screenwriter for directors such as Nagisa Oshima and Kōji Wakamatsu, Masao Adachi was deeply involved with the left-wing radical politics of his time. After a trip to Lebanon to meet the notorious Japanese United Red Army, he decided to join them. Masao Adachi was arrested in 2001 and forced to return to Japan. Director Eric Baudelaire uncovers one of the best-kept secrets of Japanese cinema and society. The story of the Japanese Red Army recalled through three emblematic lives: the JRA founder Fusako Shigenobu, her daughter May and filmmaker Masao Adachi. It is this complicated, dark, and always suspenseful story that Baudelaire chose to bring forth using the documentary format. Filmed on Super 8 mm, and in the manner of fukeiron, contemporary panoramas of Tokyo and Beirut are blended in with archival footage, TV clips and film excerpts as backdrop for May and Adachi's voices and memories. They speak of everyday life, of being a little girl in hiding, of exile, politics and cinema, and their fascinating overlap. All of which adds up not so much to an enquiry as a fragmented anamnesis.

31p.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2011)

31p. Eric Baudelaire,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Courtesy of Eric Baudelaire and LUX, London)



Courtesy of Eric Baudelaire and LUX, London

어글리 원

에릭 보틀레르 | 레바논 | 2013 | 101min | HD | Color

베이루트의 겨울. 바다에서 밀려온 강퍽이 널려있는 해변에서 릴리와 미셸이 만난다. 이들이 불확실한 과거의 파편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테러, 폭발, 그리고 '엘레나'라는 아이의 실종 등에 대한 기억이 드러난다. 이 모든 기억의 파편과 함께 베이루트에서의 경험, 그리고 일본적군의 일원으로서 팔레스타인인 곁에서 싸운 비밀스러운 27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본인 화자의 굵은 목소리가 교차된다. 영화 속 화자는 미셸과 릴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들의 운명은 그가 만든 수수께끼에 의해 좌우된다. 곧 그가 전설적인 일본 뉴 웨이브 영화 감독 아다치 마사오라는 것이 드러난다. 아다치는 1972년 이래 각본 집필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보틀레르는 다큐멘터리 <시게노부 메이...>(2011)로 시작된 시작된 협업의 연장선상에서 아다치 마사오에게 동일한 이슈에 대해 탐구하는 두 번째 영화의 각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어글리 원>은 첫 번째 영화를 반영하면서 픽션 영화의 전기 및 다큐멘터리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The Ugly One

Eric Baudelaire | Lebanon | 2013 | 101min | HD | Color

Winter, Beirut. On a beach littered with cans washed up from the sea, Lili and Michel meet. As they struggle to piece together the fragments of an uncertain past, memories emerge: an act of terrorism, an explosion and the disappearance of a child, Elena. Woven throughout these fragments is the deep voice of a Japanese narrator who recounts his own experience of a weeping Beirut, and his 27 clandestine years fighting alongside the Palestinians as a member of the Japanese Red Army. His voiceover shapes Michel and Lili's story, their fate dictated by the enigma created for them by this narrator who turns out to be legendary Japanese New Wave filmmaker Masao Adachi. Pursuing a collaboration that began with the 2011 documentary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Baudelaire asked Adachi to write a script for a second film, a fiction, exploring many of the same issues. *The Ugly One*, a second chapter that mirrors the first, explores the biographical and documentary possibilities of a fiction film.



Courtesy of Eric Baudelaire and LUX, London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에릭 보틀레르 | 프랑스 | 2014 | 103min | HD |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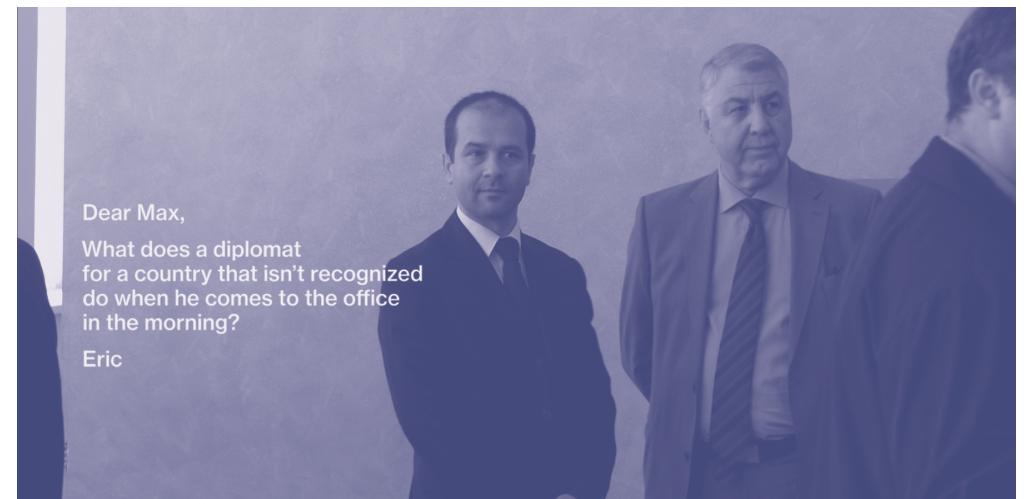
압하지야(아브하지아)*는 일종의 역설이다. 물리적 의미에서는 존재하는 국가(국경 있는 영토, 정부, 국기, 언어)이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근 20년간 다른 어떤 국가도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하지야는 경계에 걸쳐 있는 공간, 리얼리티의 틈새에 갇힌 채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막스에게 보낸 내 편지는 쪽지를 넣어 바다에 던진 유리병과 같다. [...] 1년 전, 내가 파리에서 압하지야의 전 외교관인 막심 그빈지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 이 편지는 곧바로 '수신지 불명'으로 반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주 후 막스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나의 편지를 받았고, 손 편지로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압하지야 우체국이 국제우편 업무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메일로 회신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떻게, 왜 내 편지가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에릭 보틀레르, 2014

*압하지야: 조지아 북서부 러시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치공화국

Letters to Max

Eric Baudelaire | France | 2014 | 103min | HD | Color

Abkhazia is something of a paradox: a country that exists, in the physical sense of the word (a territory with borders, a government, a flag and a language), yet it has no legal existence because for almost twenty years it was not recognized by any other nation state. And so Abkhazia exists without existing, caught in a liminal space, a space in between realities. Which is why my letter to Max was something of a message in a bottle thrown at sea. [...] When I dropped an envelope in a mailbox in Paris a year ago, I fully expected that a letter addressed to Maxim Gvinjia,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ukhum, Republic of Abkhazia, would come straight back to my studio with the notice "destination unknown." But to my surprise, ten weeks later, I got an email from Max telling me he had received my letter, but could not reply on paper since the post office in Abkhazia cannot handle international mail. I have no idea how or why my letter arrived. —Eric Baudelaire, 2014



Courtesy of Eric Baudelaire and LUX, London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am – 6pm
수, 토: 10am – 9pm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목, 금, 일: 10am – 6pm
수, 토: 10am – 9pm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 – 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 – 11pm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am – 6pm
Wed, Sat: 10am – 9pm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Thu, Fri, Sun: 10am – 6pm
Wed, Sat: 10am – 9pm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Wednesday &
Saturday from 6pm – 9pm

Parking

Daily Hours: 8am – 11pm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 (Eng)